

제960호

신성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창간호 주필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석은 민족의 큰 명절로 시기적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하늘은 청명하고 바람은 서늘하며 들녘엔 오곡백과가 넘실듭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가 가족들을 만나면서 이 날을 즐깁니다. 올해도 수천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주말부터 시작되는데다가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직장인 많아서 벌써부터 고향을 향해 떠나는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을 맞은 우리들은 마냥 즐거워만 할 수는 없습니다. 조상의 산소를 찾아서 차례(茶禮)를 지내는 추석의 전통 때문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곁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곁여 참예치 못하리라"(고전 10:20~21)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조상신을 숭배하는 어떤 마음을 품거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고전 10:14)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은총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요 3:3) 우리 예배의 대상은 조상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유일한 예배의 대상입니다.(요 4:24) 따라서 우리들은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며 복음 안에서 은총을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추석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딤후 4:2)

*추석 가정예배 모본은 본지 7면에 있습니다.

위임목사님 월요새벽기도회 '마가복음 강해' 10월 1일 월요일 새벽부터 시작

위임목사님께서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회 시간에 마가복음을 강해하십니다. 총 16장으로 된 마가복음을 통해 복음의 온종일이 가득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강해가 시작되기 전에 마가복음을 상고(행 17:11)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보혜의 은총을 미리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시 46:5)

크리스마스 메시지⑥ (금요찬양집합)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리라

(이사야 35:1~10)

닭을 키우는 농장에서 모짜르트의 음악을 틀어 놓으면 닭이 더 많은 알을 낳는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이렇듯 음악이 암탉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진정으로 좋은 음악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속하실 때에 저들이 노래 부를 자가 될 것을 예언하였다.(사 35:10) 우리도 경험하고 있듯이 일년 중에 크리스마스 시즌이아말로 찬미와 기쁨과 선물의 계절이다. 이사야 역시 말씀을 통하여 크리스마스를 증거해 주고 있다.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 중에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찬송가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찬양할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참으로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렸으며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자들은 저들이 부르는 찬양을 들었다.(행 16:23~25) 이렇듯 찬양은 오늘날에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의 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음악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동산의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준다. 창세기 3장은 죄 때문에 조화가 깨어지고 심판이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후 '유배'이라는 사람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창 4:21)

음악은 에덴동산에 있었던 그 조화를 느끼게 하며 또 장래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 깊은 평강을 느끼게 한다./1500년대 중반에 살았던 마틴 루터는 우리는 잘 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보내며 보낼수록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갔다. 그때마다 루터는 시편 46편을 노래하였다고 한다.(시 46:1) 우리들도 찬양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매일 체험하며 살고 있다. 비록 우리들이 세상의 많은 고민과 탄식의 소리로 인하여 우리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가슴이 눌릴지라도 입을 열어 만유의 주신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세상과 나는 사라지며 구속하신 주만 보이게 된다.(갈 2:20)

음악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돕는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실 때에 그의 백성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였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쫓던 애굽의 군인들이 물속에 진멸된 후에 모세는 노래하기 시작하였다.(출 15:11) 자신이 이 세상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천사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 역시 찬미하였다.(눅 1:46~50) 음악은 참으로 우주적인 언어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말로 전하려 할 때 비난을 받을수도 있지만 음악으로 전할 때에는 다르다. 음악이아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이다. 또한 음악을 만드는 피조물은 인간만이 아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사 55:12)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께 찬양한다.(계 5:8~11)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였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따르는 자들을 책망하라."고 말하였을 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고 말씀하셨다.(눅 19:39~40) 만약 누군가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음악은 우리들의 삶에 감동을 준다. 환경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바울은 위기의 시간에 실라와 함께 찬양으로 서로를 붙들며 서로에게 용기를 주었다. 사울 왕이 아돔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다했은 수음을 가지고 연주하였다.(삼상 16:23)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셨다.(마 26:30) 찬양의 원칙은 구약 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이나 동일하다. 세상도 음악의 힘을 이용한다. 마귀 역시 음악을 사용하여 인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 있었다. 그들이 찬미할 때에 다른 자들이 찬미를 듣고 있었다. 우리의 찬양은 그곳에서부터 어떤 것을 말로 나타내려 할 때에 우리의 말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나 음악은 말로 표현 못하는 깊은 생각, 확신, 고민 등을 표현할 수 있다. 우리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다시 한 번 굳어진 자아를 내어드리게 된다. 이것이 곧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할 때에 나타났던 복음의 증거다. 성령은 우리들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말한다.(시 100:1~2) 바울과 실라가 소리 내어 외칠 때 죄수들이 들었고 바로 그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바울의 찬양은 그들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집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다.(행 16:31)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듣지 못하고 있다. 대중음악은 즐겨 들으면서도 바울과 실라의 찬양에는 귀를 막고 있다. 주님께서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건 그 찬양의 능력을 아직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찬양에 귀를 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찬양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찬양을 통해 더욱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한다.(사 35:10) 아멘.

FOUR MEN

⁽¹⁾When He had come back to Capernaum several days afterward, it was heard that He was at home. ⁽²⁾And many were gathered together, so that there was no longer room, not even near the door; and He was ... ⁽¹¹⁾"I say to you, get up, pick up your pallet and go home." ⁽¹²⁾And he got up and immediately picked up the pallet and went out in the sight of everyone, so that they were all amazed and were glorifying God, saying, "We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Mark 2:1~12)

Today's Bible passage talks about Jesus' power over a paralytic man. When people read the story, the four men who brought the sick man to Jesus does not usually receive much attention, which is sad because without these four men there would be no story. The sequence of events that led to the amazing outcome was a direct result of the actions of these four men. Our miracle working Savior is great! The lame walk, the blind see, the lepers are healed, bad men live again, and even the wind and waves obey the Lord Jesus. Not only that, but He reveals the secrets of the Kingdom. The miracles, authority, and power of God are all explained by His wonderful workings. He forgives sin and makes people who believe in Him bring other people to Him. Many people gathered to Him because of their desire to hear God's word, "And many were gathered together, so that there was no longer room, not even near the door; and He was speaking the word to them."(v. 2) Among these people was one paralytic man who could not reach Jesus on his own, but there were four men who recognized his need and picked him up and carried him to Jesus, "And they came, bringing to Him a paralytic, carried by four men."(v. 3)

These four men had a burden for souls. The Bible does not tell us their names, nor how old they were or what their education or family background was like. No one knows much about them but Jesus. He knew them. He saw their faith.(v. 5) In today's world there are thousands upon thousands of pastors and great Christian speakers, but we do not know if they are true Christians. Jesus looked at the high priests during His ministry time and only saw hypocrites. Four men took it upon themselves to bring a paralyzed man to Jesus, someone who the world did not care about, someone who was like a dead man already. These four men cared about this man's soul. Their hearts were burdened. Jesus loves that kind of heart. If you really care about the lowest people, the poorest people, Jesus looks at your faith. Valuable time is time spent bringing others to Jesus. These four men were not interested in fame and fortune. When you read the story you can see that even with their good intentions that they had to overcome some tremendous problems. They overcame them because they loved this man's soul. They got it! They knew that if they did not bring this man to Jesus Christ that he would die in his sin. So many people do not come to church. So many pastors do not care for lost souls. The primitive church was different than today's churches. Even under severe persecution, they "went about preaching the word."(Acts 8:4) Jesus gives

every believer the gift to share the gospel, "And He gave some as apostles, and some as prophets, and some as evangelists, and some as pastors and teachers, for the equipping of the saints for the work of service, to the building up of the body of Christ."(Eph. 4:11~12) He wants all believers to use His tool of the gospel. He wants all believers to minister!

These four men had to break through the roof of a house in order to get to Jesus, "Being unable to get to Him because of the crowd, they removed the roof above Him; and when they had dug an opening, they let down the pallet on which the paralytic was lying."(v. 4) If Jesus came to your home with crowds in and around your property, and someone put a huge hole through your roof, would you be upset? The four men thought that one soul was more important than a house. Their burdened hearts had to break the roof because the crowds were too thick to get in. There are always obstacles in bringing people to Christ, but these men overcame the obstacles. These men looked up and found a solution. Few solutions come when you are looking down. The roof provided a route to get their friend to Jesus. It was a high cost, but whatever the cost they did not care because getting their friend to Jesus was priceless. Do you spend your time, money, and efforts on the lowly, like these four men did for the paralytic to meet Jesus Christ? Their loving kindness overcame all conditions.

These four men witnessed Jesus empty a weighed down bed. The paralytic picked up his own pallet, not the four men, and walked home. First, Jesus cleaned his soul, "Son, your sins are forgiven,"(v. 5) and then he cleaned his body, "I say to you, get up, pick up your pallet and go home."(v. 11) Jesus healed this man first spiritually and then physically. No more heavy bed, just a light pallet. Five people came to Him in faith, and each one walked away blessed. The crowds also witnessed Jesus' amazing miracle, "And he got up and immediately picked up the pallet and went out in the sight of everyone, so that they were all amazed and were glorifying God, saying, 'We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v. 12) That is the evidence of faith.

My dear friend, in front of God there is forgiveness of sin. Jesus Christ showed His authority to forgive sin and heal the sick. What better happiness and joy can one find? Heaven and earth rejoiced over the conversion of a sinner and the healing of a sick man. Everyone was able to praise God because of the four men who brought him to Jesus. Who is waiting for you to come and bring them to Jesus?

다음 주일 설교

네 사람

⁽¹⁾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리자
⁽²⁾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¹¹⁾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¹²⁾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마가복음 2:1~12)



김성관 목사

오늘의 성경 본문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네 사람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 사람이 없었다면 이 말씀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이끌어낸 일련의 사건들은 네 사람이 취한 행동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의 구주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절름발이가 걷고, 눈먼 자가 보며,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며, 바람과 파도조차도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기적,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2절) 이들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깨달았던 네 사람이 있었고 그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3절)

영혼을 사랑한 네 사람

이 네 사람에게는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 나이, 교육 수준이나 가정 배경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그들에 대해 잘 모를ंना.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아셨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5절) 오늘날 세상에는 수백만 명의 사역자들과 위대한 설교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잘 신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기간 동안 대제사장들을 만나셨지만 오직 위선자의 모습만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무관심했던 사람,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일을 네 사람이 떠맡았습니다. 이 네 사람의 관심은 그의 영혼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사용된 시간입니다. 이 네 사람은 명백히 재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보면 그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중풍병자의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만일 이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지 못한다면 결국 그는 자신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버린 영혼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현대교회와 달랐습니다.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행 8:4) 예수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나 교사로 주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병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1~12) 주님은 모든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신자들이 영혼구원을 위해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행동한 네 사람

이 네 사람은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지붕을 뚫어야만 했습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4절)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오셨는데 집 안팎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누군가 지붕에 커다란 구멍까지 뚫어놓았다면 여러분은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네 사람은 집보다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결국 지붕을 뚫어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데려가려면 언제나 걸림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방해물들을 모두 극복했습니다. 위를 쳐다보면 그들은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아래를 보면 전혀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붕을 이용하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많은 대가를 치르는 일이었지만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가련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사랑으로 가득한 그들의 자비가 모든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은총을 경험한 네 사람

이 네 사람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것을 보았습니다. 네 사람이 아닌 중풍병자 본인이 자신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영혼을 깨끗케 하셨습니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5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의 육신을 깨끗케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11절) 예수님은 먼저 그의 영혼을 치료하셨고 그 다음 육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누워있던 침상은 이제 더 이상 무거운 침상이 아니라 가벼운 ‘들 것’에 불과했습니다. 다섯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왔고 모두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12절) 이것이 믿음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 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치시는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이 또 있을까요? 한 죄인이 회개하고 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하늘과 땅이 기뻐했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네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을 예수님께 데려가 주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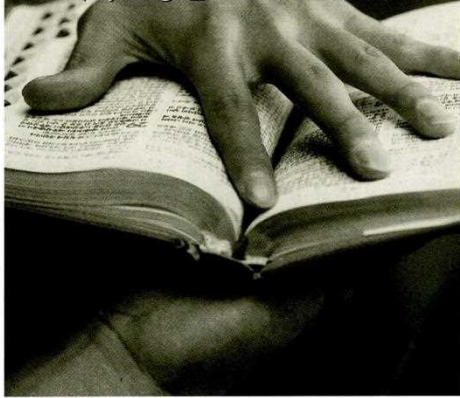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행 4:1~3) 이것이 당시 성도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다. 복음을 전하는 초대 교회 성도들은 항상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그들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순한 박해, 핍박 그리고 순교를 통해 100년이 지나지 않아 일천만 명을 넘어섰다. 끔찍한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견고해진 초대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여야 한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기도하는 교회였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 법정에 서 재판을 받았다. (행 4:5~14)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석방시켰다.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은 동역자들에게 가서 성도의 일을 설명한 뒤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친 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행 4:31) 이처럼 초대교회가 지닌 힘의 원동력은 기도였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기도였다. 기도할 때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대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외적 상황을 보지 않았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였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기도하였다. 한 때 메시야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던 어머니, 친동생들도 그들 가운데 섞여 간절히 기도하였다. (행 1:14) 이처럼 기도는 초대교회의 근간이 되었다. 이후에 교회를 향한 수많은 도전과 핍박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였다. (행 12:5)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

사랑하는 교회였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은 간절히 기도했다. 그 때 임하신 성령은 초대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행 4:32)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되게 하셨던 것이다. 십자가의 사랑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초대교회의 근간이 되었다. 마침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도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들 삶의 출발선이었기에 이들에게 자신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동안 소중하게 여겨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의미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자. (요일 2:15~17)

수요1부 예배 메시지 (2007. 9. 19.)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31~33)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모두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이웃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요일 5:1~2) 초대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였다.

증거하는 교회였다 기도하며 사랑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행 4:33)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 (행 1:8)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초대교

회 성도들을 둘러싼 모든 환경은 복음을 전할 수 없었고 교회를 일으키지 않았다. (행 16:20), 그들은 철저히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초대교회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였다.

초대교회의 환경은 너무 열악했다.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즉시로 핍박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기도하였고 사랑으로 충만했다. 그들이 증거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교회는 어떠한가? 우주안에서는 모래알보다 더 작은 지구, 그보다 더 미세한 먼지 같은 자신의 자존심과 교만으로 가득하지 않는가? 성령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부, 명예, 권력이 주는 성공의 소리에 귀가 솔깃하지 않는가? 진심으로 회개하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일 3:1) 여기서 "어떠한 사랑"은 또 다른 세계(another world)의 사랑, 즉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이 사랑을 진실로 믿자. (요일 3:2) 지금 우리는 임박한 종말의 징조를 보고 있다. (벰후 3:10)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래알보다 더 작은 세상의 것을 누리겠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자. 우리는 복인이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은 매순간 우리의 삶에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교회를 초대교회처럼 기도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찬 245장) 아멘.

주님만 의지하는 19교구

19교구는 관악산 북쪽의 관악구와 관악산 서쪽의 금천구로, 서울에서 가장 역동성이 있고 변화가 많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구는 젊은 대학생, 고시 준비생, 코리아 드림을 꿈꾸는 연변 조선족, 정든 고향을 떠나 상경한 이주민, 우리 대학 부 학생들이 어린 소년 소년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소그룹 봉공방(봉헌동 공방방)이 있는 곳입니다. 지하철을 타 보면 환승역이 아닌데도 타고 내리는 승객이 가장 많은 곳이 낙성대역부터 구로 디지털역 구간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타 교구에 비해 규모가 작아 교구 개편 후 격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반 년이 지난 후 뒤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약할 때가 강할 때라는 말씀 (고후 12:9)이 이루어진 시간이었습니니다. 내세울 것이 전혀 없던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였습니니다. 대부분의 일꾼들이 아직은 미약하기에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니다. 약하였기에 주님께 의지하여 스스로 열심을 내었고 역지로 시켜서 상 받았고, 주님께서 선한 일들이 자율적으로 되도록 하였습니다. (론 1:14)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나는 교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한 저자들을 사용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사에서 예수님이 과부를 주인공으로 삼아 중요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신 것처럼 2년 전 후인 지금도 주님은 같은 방법으로 19교구를 사용하여 주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칠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어 가슴을 보며 이제는 연약함을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히 4:12)

19교구는 앞으로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금요찬양집회, 수요영성훈련, 교구모임 외에도 교회학교, 성경공부 모임에 기쁨으로 참여하여, 자기 외를 구하는데 열심인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 최고인 줄 아는 데서 자기가 "죄인 중에 죄수" (딤후 1:15)임을 아는 자로 바뀌어 주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교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랑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리노라" (고후 1:10) 아멘.



노영한목사, 19교구장

말씀까지

증인들의 고백

“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증인들의 고백을 들어 보십시오.

췌 성령님께서 일정을 인도해 달라고, 행여 나의 선입관이 선교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영적전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현장에서 매일 투쟁편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담대하게 십자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게 하셨습니다. (김봉화 집사)

췌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손지 못지 하나까지도 들어 쓰시고 어눌한 발음 한 마디 가지도 사용하셔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게 하시어 눈물흘리며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선교가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남준자 집사)

췌 노인에서부터 서너 살의 어린이들까지 한결같이 맑은 영혼을 지닌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우상숭배를 유난히 많이 하는 선교지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집결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뜨겁게 기도하였고, 차로 이동할 때면 찬송하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인숙 권사)

췌 그곳에 있는 사원이 십자가로 바뀌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를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져서 그 나라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희희 집사)

췌 한 영혼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전도지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를 짚어주고 끝까지 영접기도를 따라하도록 권유했을 때 결국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에 큰 기쁨을 얻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감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소중한 선교였다. (박현순 권사)

췌 간절할 기도의 위력이 모든 팀원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고, 한 영혼을 구원시켰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므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케 해 주셨던 주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이정애 권사)

췌 “주 믿는 형제를 사랑의 사귀은...” 손을 잡고 찬양할 때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찬양 그대로 천국에서 그들을 만나기를 소망하였다. 이윽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부둥켜 안아주었다. 이 땅에서 복음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최옥수 집사)

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느끼게 해 주셨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선교지는 선교가 금지되어서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그런 것이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언어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기쁘게 받으며 영접기도를 따라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문구 교사)

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몸이 좋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아무 걱정 없이 출국할 수 있었다. 선교지에 가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웠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였다.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 (윤수정 학생)

췌 그곳의 영혼들은 매우 순수했습니다.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경청해주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요. 그 땅에 복음이 열매 맺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지은 학생)

췌 처음 선교에 입하는 나는 “어떻게 전도지와 말만으로 전도를 할 수 있지?” 하고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써를 뿌릴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저라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혜연 학생)

췌 우리 팀은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할 해 보겠다는 생각이 앞서 욕심을 부린 것 같았다. 같이 막혀 멈춰선 그곳이 주님의 인도하신 곳으로 생각하고 축조 전도를 하였다. (배종복 집사)

췌 자기부인! 말로는 얼마나 쉬운지요? 하지만 실제로 사역을 준비하면서 여전한 경험과 지식이 앞서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므로 선교사역을 준비하게 하시고 사역지로 떠났습니다. (현준봉 안수집사)

췌 인간적으로 나약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였고, 더 깊은 자기부인이 요구되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역시 주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사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정진 집사)

췌 바투쟁한 것을 회개하였고, 부모님한테 화낸 것을 회개하였다. 사역 동안에도 답고 자증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다. 복음의 도구로 이 죄인을 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김운환 학생)

췌 사역이 끝나고 속으로 돌아가는 중에 전도지를 떨어뜨려 줄다가 소를 물고 가던 아이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서 정말 부딪혔다. (박충현 학생)

췌 가방이 공장에서 오지 않아 첫날 밤은 제대로 옷도 갈아 입지 못했다. 아토피 증상까지 나타나 몸이 괴로웠다. 평화가 시간에는 불이 정전이 되었다. 처음 전도지를 나눠줄 때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고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열은 정신을 차리고 성령이 이끄시는대로 전도지를 나눠주고 영접기도문을 읽었다. (이주안 학생)

췌 4년 전만 해도 소망 없는 암흑의 밤 같았는데, 지금 그 땅 이곳 저곳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우리를 반기기 맞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멀기는 하지만 소망이 있는 나라, 복음의 빛이 비추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 안수집사)

췌 점심 전에 공동 수돗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거절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지만 대부분의 영혼들이 순수했습니다. 교회가 생기길 바라는 분도 계셨고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금신 집사)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21일(금) - 9월 28일(금)	8.6.7.18.19.21과 청년1·2부 연합	이기욱
9월 21일(금) - 9월 28일(금)	15.1.6.11 23교구 연합	이홍우
9월 22일(토) - 9월 29일(토)	15교구 청년1·2부 연합	정철환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29일(토) - 10월 6일(토)	17.24교구 연합	조문수



예루살렘 찬양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노쇠하고
헌신을 하려 해도 몸과 마음 안 따르고
숨소리 거칠어지며 힘든 모습 역력하다

백발이 성성에도 얼굴빛은 천사 같다
성대는 연약해도 고운 음성 그대로다
천상의 천군 천사도 시샘을 하겠구나

곡조도 서투르고 가사도 잘 잊는다
목청껏 불러보아도 소리는 나지 않고
싱긋인 얼굴 위로는 땀방울이 솟는다

구원의 기쁜 소식 항상 찬양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자리 지키다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기쁜 찬송 늘 부르리

박철구(장로, 예루살렘 찬양대원)

찬양 그리고 전도

9월 8일, 기대하던 '코이노니아의 밤'이 진행되었다. 또한 바로 다음 날 고등부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었다. 이 두 날에 걸쳐 주님은 고3인 나에게 특별한 두 가지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찬양'이었다. 나는 예분찬양대에서 3년을 봉사하였는데 찬양연습시간이 굉장히 좋았다. 그렇기에 연습시간에 늦는 것을 싫어하였고, 찬양연습을 거의 빠지지 않았다. 내가 찬양연습을 좋아하였던 것, 찬양을 많이 부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예배시간에는 불러야 하는 찬양이 한정되어 있지만, 토요일 예분찬양대 연습에서는 4시부터 6시까지 맘껏 찬양을 하여 좋았다. 그렇지만 이 찬양연습시간을 사모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어 언제나 그 점이 아쉬웠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하셨다. 바로 우리 고등부 모두가 '코이노니아의 밤'의 과별 총합대회를 위해 다같이 찬양하였던 것이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그렇게 아름답던지...'. 난 우리들의 연습하는 찬양가들도 들으시며 기뻐하셨을 주님을 떠올렸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웃고 계셨을 것이다. '코이노니아의 밤'으로 인해 우리 고등부 전체가 찬양을 하게 해주시고, 연습을 통하여 서역서역하였던 친구들과도 하나가 되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

내가 받았던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전도'이다. 나는 19년을 충현교회에 다니면서 '전도주일'이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전도라는 말은 맨지 나라는 어원이지 않고, 나는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난 인연에 살기 때문이다. 또한 고3이기 때문이다. '과연 누가 아침 일찍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 예배를 드리러 나가겠다고 하겠는가? 또 고3인데...' 하지만 총동원 전도주일이었던 9월 9일, 그날에 나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핑계였음을 깨달았다. 나처럼 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전도를 많이 한 것이다. 그날 난 내가 그렇게 한심스러울 수가 없었다. 멀리 사는 우배가 데려온 새 친구를 보면서 나는 눈물이 날 뻔하였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고등부 '볼로스' (학교전도)에서 봉사하여 천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으면서도 학교 친구들에게 전도하려고 시도조차 안 했던 내가 너무 한심하였다. 주님은 분명 "가라!"고 하셨지만 난 언제나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 것이었다. 총동원 전도주일에 나는 다른 친구들이 데려온 새 친구들을 보며 너무 기뻐했고 그들이 그날 꼭 주님을 만나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고, 앞으로는 나도 전도에 힘쓰리라는 결심으로 기도를 하였다. 이같이 주님께서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가장 잘 알고, 그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

전숙원(고등부)

때 늦은 신앙생활이기에...

우리 부부는 2남 4녀를 둔 다산의 부부로, 평범하고 비교적 건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특히 저는 전통적 유교사상이 몸에 배어 교회와는 거리가 멀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4월, 아내가 담도암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진단을 받아 대학병원에서 대수술을 받고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제 아내를 살려주소서."라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새어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모두가 거룩하시고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 딸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지난 60년 넘게 하나님을 떠나 있던 죄인을 사함하는 자녀로 받아 주시겠다는 깨우침이며 시련이었습니니다.

현재, 저는 친구의 전도로 충현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때 늦은 신앙생활이기에 더욱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새 가족 양육부의 교제를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60년 넘게 나를 지배하던 유교사상과 습관들을 일시에 버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니다.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성경과 세상을 사이에 둔 나의 영적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오직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은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이어져오는 조상송배 사상은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 아침에 떨칠 수가 없기에 나의 모습은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에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김태원(성도, 새가족양육부)

구역 예배는 소중한 시간



오늘은 오후에 구역예배가 있는 날이다. 오전에 수요예배를 드렸기에 또 구역예배를 드리기가 부담스러웠다. '집에 있는 아이들 저녁준비도 해야 하고, 초등학교 공부도 돌봐주어야 하고, 아침에 일찍 나오느라 세탁기에 빨래도 그냥 있는데... 어떡하냐. 갈까, 말까?' 망설여진다.

우리 구역은 구역예배 일시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구역장님께서는 좀더 많은 구역식구들이 모이도록 그 주간에 가장 적합한 요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신다. 예배를 위한 모임이기에 모두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석한다. 구역의 왕니님께서는 사임을 하시면서도 항상 구역예배를 우선으로 하시니 그 의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은 어떤 핑계로 구역예배를 빠질 수가 없다. 또한 구역장님은 교구 영성훈련을 받고 <충현의 만나>와 <주간충현>의 다음 주 설교, 그리고 성경 주석까지 찾아서 말씀을 철저히 준비해 오셔서 구역예배가 마치 전지한 성경공부 시간 같다. 그러나 모든 구역원들이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내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말씀에 위로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권사님의 삶 속에서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체험 이야기는 정말 귀에 속속 들어오는 귀한 시간과 같다. 이렇게 귀한 구역예배 시간은 내 생활 속에 아주 소중한 시간이다.

나는 이제까지 토대 신앙으로 주님을 믿어왔고 늘 말씀에 은혜받고 감동받지만 항상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고 속박하는 것이 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시댁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가정경제 문제, 온갖 육적인 일로 영적으로 받은 은혜가 나뉘지 못하고 무거운 세상 짐에 눌릴 때가 많다. 그러나 구역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은혜 받는다. "그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리..." (출 6:8)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권사님의 삶과 구역장님의 생활을 통하여 보고 들으며 확인하고 나도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구역예배를 은혜 충만하게 드리기 힘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구역예배도 기대하면서... "구역장님! 다음 주엔 언제, 어디서 구역예배 드려요?"

설진희(집사, 4교구)

주의 뜻대로

(사도행전 21:10~14)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난 무렵, 아가보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는 바울의 띠로 자신의 발과 손을 묶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입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11절) 아가보는 신실한 선지자로, 이전에 예루살렘의 기근에 대해서 예언하기도 했습니다.(행 11:28) 그의 예언은 성령이 바울에게 예언한 것을 단지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일행이 두로에 머무는 동안 제자들이 말하러던 것과 일치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행 21:4)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을 때,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려가 바울의 결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성령이 바울에게 예언한 것을 행하는데 있어서 성령께 순종했으며, 결코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14절)

누가를 포함해서 바울의 주변에 있던 모든 동역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12절에 기록된 “우리”는 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자신들의 뜻에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진실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실수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감청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

추석 가정예배

- ◆ 찬 송 496장 다 같 이
-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 ◆ 말씀봉독 행 21:10-14 인 도 자
- ◆ 말씀선포 주의 뜻대로 인 도 자
- ◆ 통성기도 다 같 이
- ◆ 찬 송 431장 다 같 이
- ◆ 주기도문 다 같 이

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13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의 뜻에만 집중하였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사역자로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였지만,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만일 어려움을 피해 가는 것이 가능하였어도, 그는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을 취하는 쪽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또는 자신이 고난을 도저히 피할 수 없어도 그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관념시켜 말씀하셨습니다.(막 10:33~34)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에 순종하였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도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였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은 책임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역으로 여겼습니다. 그 때에 그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발견한 후로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는 박해를 가하는 자였으나, 십자가를 이해한 후로는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자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총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영광을 나타낼 목적으로 창조하였습니다.(사 43:7) 영광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애에 대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목적을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행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요 6:40)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고티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비추어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 때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의 회복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 되는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복음으로 충만한 추석

보물로 거둔다 참 신자는 정령이나 선조의 영이나 동식물이나 자연물의 초능력이나 사람이 만든 어떠한 신령에게 제사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께만 제사를 드립시다. 천지 삼라만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운행,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복락을 주장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드립시다. 이 제사는 곧 예배입니다.(요 4:24) 참 신자는 어떤 음식을 진열하여 놓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립시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 제사를 드립시다.(롬 12:1) 하나님과 교통하며 헌신하기 위해 산 제사를 드립시다. 따라서 조상숭배를 앞세운 제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 이외의 어떤 신이나 우상에게 제사하거나 절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5:10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를 절대로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권면합니다.(고전 10:14) 고린도후서 6:15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사탄)이 연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물이나 땅이나 신이라 친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고전 8:5-6)

불신자의 제사는 귀신에게 주는 것이므로 불신자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됩니다.(히 10:26) 특히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히 10:35)는 말씀대로 가족으로부터 핍박이 따를지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제사하는 곳에 참석해야 할 경우에는 절 대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예 제사지내지 싫다 하여 참석하지 않으면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 가족전도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주님이 주신 가족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여 제사가 헛된 행위임을 깨닫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460	이기원	17	초동부	최희재(2)	1462	한승우	2	청년1부	김희선(2)
1461	김진성	21	청년1부	황희정(1)	1463	김정환	13	청년2부	김연순(1)
1462	남영호	16	청년2부	김성현(18)	1464	한은주	24	청년3부	황영숙(8)
1463	이호영	9	청년2부	이동욱(1)	1465	심성섭	2	청년2부	신동우(4)
1464	김준교	13	청년3부	황형태(13)	1466	최진영	2	청년2부	임원숙(4)
1465	이종철	25	요전부	이승희(1)	1467	한승규	18	대학부	최희승(18)
1466	여유나	25	요전부	황형태(8)	1468	정승룡	21	청년1부	장기희(8)
1467	송정화	1	청년2부	김 준(14)	1469	김문주	21	청년1부	조진미(1)
1468	최신은	1	대학부	최정환(5)	1490	정현우	21	고등부	정정혜(5)
1469	임주영	19	대학부	부	1491	정윤민	21	초동부	정정혜(5)
1470	김미정	10	청년2부	박선희(10)	1492	김민홍	15	청년2부	전정혜(15)
1471	김현서	10	청년2부	박선희(10)	1493	최희찬	1	청년1부	우경선(1)
1472	장진호	5	청년1부	이영희(1)	1494	주인환	1	청년1부	조영제(1)
1473	이수진	8	초동1부	김정현(7)	1495	김영미	13	청년1부	조윤선(13)
1474	김진희	3	예배다부	주은혜(3)	1496	전혜진	14	청년1부	조윤선(13)
1475	이병조	12	청년2부	태영자(16)	1497	박지훈	12	청년1부	이옥자(2)
1476	이정선	19	청년1부	부	1498	안영택	11	청년3부	장정현(18)
1477	권진희	9	대학부	박석윤(9)	1499	이인희	13	청년1부	김정자(13)
1478	김경자	9	대학부	박석윤(9)	1500	윤희수	9	유치부	양신자(9)
1479	장숙자	3	청년2부	이진규(6)	1501	윤희수	8	청년2부	이병진(15)
1480	구자호	23	청년2부	김종호(2)	1502	조은진	17	청년1부	성기희(1)
1481	정우성	23	청년2부	김종호(2)					

☆ 찬양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교회 소식

알림

1. 전도위원회의 지회별 월례회
일시: 30일(다음 주일), 오후 3시 10분
장소: 1지회: 제1교육관 404호
2지회: 제1교육관 405호
3지회: 제1교육관 409호
4지회: 제1교육관 410호

발세

1. 민병철 성도(안상숙 권사·이복순 집사·이복순 집사·이윤진 집사의 모친, 12교구 장로(4구역) / 15일 밤세, 17일 장례)
2. 최희준 타교성도(최희준 집사의 모친, 권종성 성도의 장모, 7교구 장미2구역) / 17일 밤세, 19일 장례
3. 김명태 타교성도(김남수 집사의 부친, 장길주 안수집사의 장남, 1교구 연구구역) / 17일 밤세, 19일 장례
4. 김동환 타교성도(정향운 집사의 모친, 이규와 집사의 시모, 22교구 평안한성구역) / 17일 밤세, 19일 장례
5. 박종애 타교성도(박종현 집사의 모친, 안경진 집사의 시모, 1교구 옥영4구역) / 18일 밤세, 20일 장례

결혼

1. 김미현 군(김금옥 집사·김진덕 권사의 아들, 호주영교회)과 유혜정 양(유상대 장모·김정희 권사의 딸, 24교구) / 29일(토) 오후 1시, 분당 아이원페덱스 라자 3층

통절기 지역예배 시간 변경 안내

대 상: 수요일 2부 예배 및 금요찬양집회
변경일시: 10월 3일 수요일 2부 예배 시부터
지역 7시로 변경

기도원 집회 안내

이번 주 요일제(25일) 기도원 집회는 없습니다.

수요성경공부 유망 안내

9월 26일, 10월 3일 수요성경공부는 유망합니다.

충현기도원 축복직권 모집

1. 모집부문: 성당 주방에서 일하실 분
2. 자격: 세례교인으로서 여성분
3. 제출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당직부 추천서(타교인)
4. 서류제출처: 김남수 역삼동 665-1 사무국 (☎ 031-766-5425)

2. 고경원 군(조숙진 집사의 아들, 8교구)과 임지영 양(임원배 장모·유향순 권사의 딸, 타교회) / 29일(토) 오후 3시, 이리도 교한공제회관 15층 대강당

2008년 제2차 CMTC 헌법

(교육과정: 3주간 장소: 갈릴리움)

시 간	10월 7일(주일)
18:10~19:10	제2강 선교와 자기부인
19:10~19:30	제2강 충현교회 선교정책
시 간	10월 14일(주일)
18:10~19:00	제3강 종교권별 사제, 선교지 연구서
19:00~19:30	제4강 선교 정책

*수강신청: 충현 당일 오후 3시부터 갈릴리움 입구에서 접수
*CMTC 직무분류: 10월 27일(토), 14:00~17:00

CMTC 탐방 수련회

일시: 10월 3일(수), 오후 1시~5시
장소: 배다리를 대상: 안수집사 전원

청년1부 39차 정기회

일시: 9월 29일(토), 오후 5시 20분
장소: 제2교육관 4층
대상: 청년부 회원 전원

관사지 전파모임

일시: 9월 30일(다음 주일), 오후 3시
장소: 갈릴리움

7교구 충현원 전도집회

일시: 9월 30일(다음 주일), 오후 2시~3시
장소: 제2교육관 4층

음영실 자막 봉사자 모집

자격: 세례교인, 연일 재한 없음
문의: 음영실내선 224

9월 충현 기도의 향

- 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나"(마 16:18)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충현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라는 데가 주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② 25개 교구와 22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③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시므로써 십자가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④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되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신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⑤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충현 기도주변 전도를 통하여 역삼동 일대의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⑥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하나되어, 예수말씀 전당대회를 통하여 금요선교집회 보충의 중요성을 더욱더 크게 하소서.
⑦ 피택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십자가의 일꾼 되게 하시며 매주일 통목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복음의 복음을 전하는 중진 되게 하소서.
⑧ 교회에 속한 제단(유지·동산·복지)과 충현복지관이 복음으로 견고해지게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남급시전 건립과 풍자 공연 수장관, 분당 외벽석재 부수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아인 주 새벽기도회 당당

	24 (월)	25 (화)	26 (수)	27 (목)	28 (금)	29 (토)	30 (주일)
설교자/기도자	여국근/김환기	유현철/황재현	안치원/임무수	정중신/임병준	양재욱/양승찬	전성원/강국필	최강진/최문실
설교 본문	사 11:1-9	사 11:10-16	사 12:1-6	사 13:1-16	사 13:17-22	사 14:1-11	사 14:12-23

예배당담 안내 (9/26-9/30)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9/26	수요 I	주의 재림의 날은?(마 24:3) 김성관 목사	유재건	이영애	신랑되신 예수께서 (호산나 찬양대)
9/26	수요 II	죽어야 사는 사람들 (론 1:4-15) 최성득 목사	유성태	윤남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신로암 찬양대)
9/28	금요찬양	김성관 목사	최강진		예루살렘 찬양대 / 바이올린 팀 / 소프라노 김관미
9/30	주일 I	네 사람 (막 2:1-12) 양태선 목사	유성태	신상수	「예배 찬 헌」
9/30	주일 II	네 사람 (막 2:1-12) 유현철 목사	이경준	신광철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대서 / 풀꽃 중(주)남부내 옥소크로소
9/30	주일 III	네 사람 (막 2:1-12) 김성관 목사	안치원	양기수	주 예수 닮은 사람 / 소프라노 정희희(명동교회 찬양대 솔로리스트)
9/30	주일 IV	네 사람 (막 2:1-12) 하종철 목사	김준희	김태서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대서 / alto 이성진(명동교회 찬양대 솔로리스트)
9/30	주일 V	네 사람 (막 2:1-12) 양재욱 목사	탁정원	이정우	저 죽어가는 자다 구원받고 / 소프라노 조예민(한빛교회 찬양대 솔로리스트)
9/30	주일영양	육의 아내를 생각하여 보자 (요 27-30) 김성관 목사	이재영	임연수	충현 전도장중단 / 호산나 찬양대 / 18교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IV 오후 1:00(외국인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	본당
주일선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1오전 11:00 II 저녁 7:30	본당
금요찬양집회	매일 저녁 7:30	본당
새벽기도회	대일 새벽 5:00	본당

기도원 집회 안내 (☎ 031-766-5425)

집회	시간	차량
최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분당 일출반
금요집회	제네 11:00	금요찬양회 후원반 일출반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오후 5시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62명(영어,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을 포함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I 오전 9:00	제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아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307호
초등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507호
중등 1부	오전 9:00	제1교육관 301호
중등 2부	오전 9:00	제1교육관 401호
중등 3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등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학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분	시간	장소
청년 1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청년 2부	오후 12:30	제2교육관 307호
청년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릴리움
사랑부	오전 11:00	복자관 지하1층
예배다다부	오전 9:00(학성) 오후 1:00(학성) (주)오전 3:30(오전 6:00) (금)제네 7:00(제네 9:30)	제2교육관 1층
탁아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1층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1층
충현어린이집	주간	제1교육관 107호
정신장애교육	주간	충현 복지관
국회국립인성교	오전 11:00	아 멘 홀

심·기·는·분·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 부목사				
김은호	노경원	이병학	이 훈	남근수	박기근	류병희	여국근	안창덕	장진호
제1교구위원장	제1교구위원장	제1교구위원장	제1교구위원장	제1교구위원장	제1교구위원장	제1교구위원장	제1교구위원장	제1교구위원장	제1교구위원장
김종국	최두진	이창호	차신조	김광남	김광남	김광남	김광남	김광남	김광남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이종원	이종원	이종원	이종원	이종원	이종원	이종원	이종원	이종원	이종원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김단용	한규진	김영수	김기환	김기환	김기환	김기환	김기환	김기환	김기환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이형수	안동현	황한민	김구형	김구형	김구형	김구형	김구형	김구형	김구형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이계인	박덕환	이대식	박종국	권영철	권영철	권영철	권영철	권영철	권영철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조종환	배준식	김영달	이철호	최지훈	최지훈	최지훈	최지훈	최지훈	최지훈
제1교구위원장	제1교구위원장	제1교구위원장	제1교구위원장	제1교구위원장	제1교구위원장	제1교구위원장	제1교구위원장	제1교구위원장	제1교구위원장
노영환	박철구	정철진	신상수	고재수	고재수	고재수	고재수	고재수	고재수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김정환	김영준	이달용	장철환	김영준	김영준	김영준	김영준	김영준	김영준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함철구	유석민	정선원	안석원	김기환	김기환	김기환	김기환	김기환	김기환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김정국	김종진	임창식	김은철	전학대	전학대	전학대	전학대	전학대	전학대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김진성	전계성	장종국	전준배	석영식	석영식	석영식	석영식	석영식	석영식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구재환	송두성	최차용	신진석	유상대	유상대	유상대	유상대	유상대	유상대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박상대	김규서	신광철	정창수	엄복식	엄복식	엄복식	엄복식	엄복식	엄복식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이상식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충현교회						